

부 록

- 1 전문가 설문
- 2 주민 설문

전문가 설문

- 대상 : 기후(취약) 및 제설 관련 전문가 23명
- 전문가 설문 개요
 - 제설취약지점 관련 요인 선정 및 가중치 조사
 - 국내 제설 관련 현황(방법, 주민참여 등) 및 개선 방안 조사
- 기간 : 2013 12. 26~2014. 1. 3
- 방법 : 이메일을 통한 설문 조사

표 1 전문가 집단 구성

구분	인원(명)	구성
연구기관	16	강원발전연구원(1명), 경기개발연구원(1명), 국립기상연구소(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1명), 국토연구원(2명), 서울연구원(5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2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3명)
대학교	7	강릉원주대(1명), 고려대(1명), 명지대(1명), 부산대(2명), 서경대(1명), 연세대(1명)

- 설문지 구분
 - A : 서울시 제설취약지역 도출을 위한 요인 조사
 - B : 서울시 폭설피해 대처상의 문제점 조사
 - C : 서울시 폭설 피해 저감 및 제설 개선 방안 조사

표 2 설문지 구성

구분	세부 항목	내용	설문방안
A	A1-1	• 연구대상지 관련 제설 취약 요인 중요도 조사	다지선다형
	A1-2	• 연구대상지 관련 제설 취약 요인 가중치 조사	..
	A2	• 서울 자치구 단위의 제설 취약 요인 조사	..
B	B1-1	• 폭설피해 저감을 위한 의견 조사	..
	B2-1	• 폭설피해 대처상 문제점의 부문별 중요도 조사	..
	B2-2	• 폭설피해 대처상 문제점의 부문별 중요도 조사	..
C	C1-1	• 부문별 폭설 피해 저감 및 제설 개선 방안 조사	..
	C2-1	• 부문별 폭설 피해 저감 및 제설 개선 방안 조사	..
	C2-2	•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조사	..
	C2-3	• 제설 미이행 과태료 도입 방안 조사	..
	C2-4	• C2-3 항목 관련 세부 의견 조사	서술형
	C3	• 구분 C 관련 기타 의견 조사	..

1 1 항목별 설문 결과

- 1) A1-1 : 연구대상지 관련 제설 취약 요인 중요도 조사
 -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5순위 1점으로 계산하여 집계해 본 결과, 순위는 경사, 일조, 향, 취약시설 연결도로, 방재시설 인접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 A1-1 항목 결과

항목	민감도			노출	적응
	향	경사	일조	취약시설 연결도로	방재시설 인접성
합계	66	86	84	57	37
비율(%)	19.7	26.4	25.2	17.7	11.0

- 2) A1-2 : 연구대상지 관련 제설 취약 요인 가중치 조사
 - AHP 방식으로 가중치를 조사한 결과, 가중치는 향이 0.188, 경사는 0.288, 일조는 0.249, 취약시설 연결도로는 0.156, 방재시설 인접성은 0.119로 나타났으며, 일관성 지수는 0.00437로 분석됨.

표 4 A1-2 항목 결과

항목	민감도			노출	적응
	향	경사	일조	취약시설 연결도로	방재시설 인접성
가중치	0.188	0.288	0.249	0.156	0.119
C.I.	0.00437				

* 민감도 : 0.724 노출 : 0.156 적응 0.119

- 3) A2 : 서울 자치구 단위의 제설 취약 요인 조사
- 서울시 자치구 단위의 제설취약지역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5개 중복 선택), 제설제(양) 및 제설장비(수)가 19개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평균 일조, 평균 경사, 최심적설, 평균 향 순으로 선택됨.

표 5 A-2 항목 결과

항목		선택 횟수	비율(%)	비고
1	평균 향	10	8.7	
2	평균 경사	16	13.9	
3	평균 일조	18	15.7	
4	평균 표고	2	1.7	
5	연평균 적설량	6	5.2	
6	최심적설	10	8.7	
7	동절기 평균 기온	6	5.2	
8	평균 교통량	6	5.2	
9	인구	3	2.6	
10	제설취약인구	8	7.0	
11	취약시설 수	3	2.6	
12	방재시설 수	3	2.6	
13	공무원 수	4	3.5	
14	제설제(양) 및 제설장비(수)	19	16.5	
15	기타	1	0.9	주민의 자발성
합계		115	100.0	

4) B1-1 : 폭설피해 저감을 위한 의견 조사

표 6 B1-1 항목 결과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 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자치구 제설 미흡	-	-	-	10(43.5%)	13(56.5%)
주민참여 미흡	-	-	3(13.1%)	9(39.1%)	11(47.8%)

5) B2-1 : 폭설피해 대처상 문제점의 부문별 중요도 조사(서울시/자치구 제설 미흡 부문)

표 7 B2-1 항목 결과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상황대처능력 부족	5	14	4	47(2위)
제설역량	16	6	1	61(1위)
제설방법	2	3	18	30(3위)

* 합계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으로 줘서 빈도를 곱해 산출한 것

6) B2-2 : 폭설피해 대처상 문제점의 부문별 중요도 조사(주민참여 미흡 부문)

표 8 B2-2 항목 결과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합계
제설 강제이행의식 미흡	11	6	3	3	71(1위)
제설 요령 인지 미흡	2	4	8	9	45(4위)
자원봉사 활동 미흡	4	9	6	4	59(2위)
장비 확보 미흡	6	4	6	7	55(3위)

* 합계는 1순위 4점, 2순위 3점, 3순위 2점, 4순위 1점으로 줘서 빈도를 곱해 산출한 것

7) C1-1 : 부문별 폭설 피해 저감 및 제설 개선 방안 조사(서울시/자치구 제설 미흡 부문)

표 9 C1-1 항목 결과

항목	선택 횟수	비율(%)
1 상황 대처능력(업무 기준 및 정보 활용) 제고	15	32.6
2 제설역량(취약지 및 제설제/제설장비) 개선	22	47.8
3 제설방법(제설 기준 및 처리 장소) 개선 및 고도화	9	19.6
4 기타	0	0.0
합계	46	100.0

8) C2-1 : 부문별 폭설 피해 저감 및 제설 개선 방안 조사(주민참여 미흡 부문)

표 10 C2-1 항목 결과

항목	선택 횟수	비율(%)
1 제설 강제이행의식 제고	15	32.6
2 제설 요령 인지를 위한 홍보	6	13.0
3 자원봉사 활동 홍보 및 활성화	14	30.4
4 장비 확보 활성화 방안 마련	11	23.9
5 기타	0	0.0
합계	46	100.0

9) C2-2 :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조사

표 11 C2-2 항목 결과

항목	선택 횟수	비율(%)
1 공감대 형성 및 주민참여 홍보	14	30.4
2 정보(적설 상황 등) 전달 및 사전교육(제설 방법 등)	15	32.6
3 관리 및 지원(인센티브)	8	17.4
4 책임의무 구역 미제설 시 강제 제설방안(과태료)	9	19.6
5 기타	0	0.0
합계	46	100.0

10)

C2-3 : 제설 미이행 과태료 도입 방안 조사

표 12 C2-3 항목 결과

항목	선택 횟수	비율(%)
1 과태료 부과 당위성에 국민 공감대 형성	16	51.6
2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한 적절성 검토	1	3.2
3 과태료 부과 방법에 대한 절차와 기준 정립	3	9.7
4 명확한 제설책임 범위(물리적 거리) 설정	7	22.6
5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제설방법 및 기준 제시	2	6.5
6 제설취약 여건(노약자 및 장기출타자)에 대한 기준 및 대안 수립	2	6.5
7 기타	0	0.0

11)

C2-4 : C2-3 항목 관련 세부 의견 조사 (※ 주요 내용 정리)

표 13 C2-4 항목 결과

구분	내용
참여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책임 의식 고취 - 공공의 측면에서 제설 한계 인식 제고 - 공론화를 위하여 공감대 형성 필요
정보 전달 및 교육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대상교육 및 홍보 실시(동절기/하절기) - 각종 제설 관련 이벤트 실시
관리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 제설 봉사시간 인정
제한적 규제 조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 당위성에 대한 주민 설득 및 공감대 형성

12)

C3 : 구분 C 관련 기타 의견 조사 (※ 주요 내용 정리)

표 14 C3 항목 결과

구분	내용
공공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설방법(제설 및 잔설 적치/반출) 및 자재(제설장비, 제설제)고도화, 선진 사례 벤치마킹 - 제설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 효율적인 제설을 위한 정부, 유관기관, 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성 - 강제 제제방안 및 인센티브 도입 필요 - 취약지역 및 제설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 - 제설로 인한 환경문제 고려 필요
개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개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주인 의식 및 책임 의식 고취 - 제설 활동을 위한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 제설자재 비축

주민 설문

- 대상 : 서초구 주민, 회수(302부)
- 주민 설문 개요
 - 국내 제설 관련 현황 및 주민 의식 조사
- 기간 : 2013.12.27 ~ 2014.01.07
- 방법 : 서면 설문 조사
- 설문지 구분
 - S : 일반적 사항
 - A : 폭설 및 제설 관련 정보 전달
 - B : 제설에 대한 내용 이해
 - C : 제설장비 및 자재 지원

표 15 설문지 구성

구분	세부 항목	내용	설문방식
S	SQ1	• 제설인지 여부 조사	다지선다형
	SQ2	• 거주지역 조사	
	SQ3	• 거주기간 조사	
	SQ4	• 주거형태 조사	
	SQ5	• 성별 조사	
	SQ6	• 연령대 조사	
A	A1	• 폭설 및 제설 정보 습득 경로 조사	
	A2-1	• 폭설 및 제설 정보 습득 여부 조사	
	A2-2	• 폭설 취약지점 인지 여부 조사	
B	B1	• 제설 책임 조사	
	B2	• 과태료 부과 찬반 조사	
	B3-1	• 제설 요령 인지 여부 조사	
C	C1	• 제설장비 지원 여부 조사	
	C2	• 필요 제설장비 조사	

항목별 설문 결과(※항목별 미체크 사항으로 인하여 문항별 합계가 다를 수 있음)

1) SQ1 : 제설인지 여부 조사

- 설문 응답자의 제설 인지 관련 조사 결과, 총 답변자의 63.3%가 ‘제설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함. 해당 답변자들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및 저층 공동주택 거주자가 57%, 50대가 37.1%, 기상 및 방재 정보 습득 경로가 TV나 라디오인 사람이 51.6%, 제설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는 사람이 61.6%, 폭설취약지 인지도가 우수한 사람이 55.8%임. 제설의 주민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91.9%, 과태료 부과를 찬성하는 사람이 60.3%, 제설요령 인지도가 우수한 사람이 43.2%, 제설장비 보급을 잘 받고 있다는 사람이 51.6%로 각각 나타남.

표 16 SQ1 항목 결과

항목	선택 횟수	비율(%)
1 있다	186	63.3
2 없다	108	36.7
합계	294	100.0

2) SQ2 : 거주 지역 조사

- 설문 응답자의 행정동 거주지역 조사 결과, 양재1동 주민이 1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반포 1동이 11.6%, 서초4동이 10.6% 순임.

3) SQ3 : 거주기간 조사

- 설문 응답자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기간 조사 결과, ‘10년 이상 거주했다.’가 107명으로 34.9%를 차지했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했다.’가 25.0%, ‘3년 미만 거주했다.’가 24.1%, ‘3년 이상 5년 미만 거주했다.’가 16.0%로 각각 조사됨. 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

사람 중에서 5년 이상 거주자는 60.2%에 달함.

- 거주기간이 3년에서 5년 미만은 저층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나머지 거주기간은 공동주택(아파트) 거주 비율이 각각 높음.

표 17 SQ3 항목 결과

SQ3 답변 항목	SQ4 답변 항목	선택횟수	비율(%)
3년 미만	단독주택	9	12.0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28	37.3
	공동주택(아파트)	38	50.7
	소계	75	100.0
3년 이상 ~ 5년 미만	단독주택	6	11.3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28	52.8
	공동주택(아파트)	19	35.8
	소계	53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단독주택	9	13.0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21	30.4
	공동주택(아파트)	39	56.5
	소계	69	100.0
10년 이상	단독주택	18	17.8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36	35.6
	공동주택(아파트)	47	46.5
	소계	101	100.0

4) SQ4 : 주거형태 조사

- 설문 응답자의 현재 주거 형태 조사 결과, 공동주택(아파트)이 14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9.7%,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이 전체의 35.9%, 단독주택이 전체의 14.4%를 차지함.
- 제설에 대한 인지 정도는 75%가 ‘있다’로 답변한 저층 공동주택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 거주지 취약성 인식 정도(‘보통’ 이상)는 단독주택 85%, 저층 공동주택 76.2%, 아파트 75.8% 순서로 높음.

표 18 SQ4 항목 결과(1)

SQ4 답변 항목	SQ1 답변 항목	선택횟수	비율(%)
단독주택	있다	22	53.7
	없다	19	46.3
	소계	41	100.0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있다	84	75.0
	없다	28	25.0
	소계	112	100.0
공동주택(아파트)	있다	80	57.1
	없다	60	42.9
	소계	140	100.0

표 19 SQ4 항목 결과(2)

SQ4 답변 항목	A2-2 답변 항목	선택횟수	비율(%)
단독주택	전혀 아니다	0	0.0
	아니다	6	15.0
	보통	23	57.5
	그렇다	6	15.0
	매우 그렇다	5	12.5
	소계	40	100.0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전혀 아니다	5	4.6
	아니다	21	19.3
	보통	42	38.5
	그렇다	38	34.9
	매우 그렇다	3	2.8
	소계	109	100.0
공동주택(아파트)	전혀 아니다	5	3.6
	아니다	29	20.7
	보통	49	35.0
	그렇다	46	32.9
	매우 그렇다	11	7.9
	소계	140	100.0

- 5) SQ5 : 성별 조사
- 설문 응답자의 남녀 성비 조사 결과, 남자가 155명으로 51.3%, 여자가 147명으로 48.7%를 차지함.
- 6) SQ6 : 연령대 조사
-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 조사 결과, 50대가 30.8%, 40대가 21.5%, 30대가 15.6%, 60대 이상이 15.6%, 20대는 16.6%로 조사됨.

표 20 SQ6 항목 결과

항목	선택 횟수	비율(%)
1 20대	50	16.6
2 30대	47	15.6
3 40대	65	21.5
4 50대	93	30.8
5 60대 이상	47	15.6
합계	302	100.0

- 7) A1 : 폭설 및 제설 정보 습득 경로 조사(중복체크)
- 설문 응답자의 폭설 및 제설 정보 습득 경로 조사 결과, TV와 라디오가 190명으로 49.2%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119명으로 30.7%를 차지함.
 - 제설 정보 전달은 20대가 주로 컴퓨터·인터넷, 30대 이상은 TV라디오이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더 증가함.

표 21 A1 항목 결과

SQ3 답변 항목	A1 답변 항목	선택횟수	비율(%)
20대	TV·라디오	19	22.9
	컴퓨터·인터넷	36	43.4
	핸드폰	24	28.9
	스피커·확성기 안내	0	0.0
	대면 전달	2	2.4
	기타	2	2.4
	소계	83	100.0
30대	TV·라디오	24	47.1
	컴퓨터·인터넷	17	33.3
	핸드폰	10	19.6
	스피커·확성기 안내	0	0.0
	대면 전달	0	0.0
	기타	0	0.0
	소계	51	100.0
40대	TV·라디오	43	53.8
	컴퓨터·인터넷	20	25.0
	핸드폰	11	13.8
	스피커·확성기 안내	2	2.5
	대면 전달	3	3.8
	기타	1	1.3
	소계	80	100.0
50대	TV·라디오	65	52.8
	컴퓨터·인터넷	35	28.5
	핸드폰	22	17.9
	스피커·확성기 안내	0	0.0
	대면 전달	1	0.8
	기타	0	0.0
	소계	123	100.0
60대 이상	TV·라디오	39	68.4
	컴퓨터·인터넷	10	17.5
	핸드폰	6	10.5
	스피커·확성기 안내	1	1.8
	대면 전달	0	0.0
	기타	1	1.8
	소계	57	100.0

- 8) A2-1 : 폭설 및 제설 정보 습득 여부 조사
- 설문 응답자 중 ‘폭설 관련 기상 정보나 제설 상황 정보를 잘 전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전체 답변자 중 44.4%인 135명이 ‘그렇다’, 37.2%가 ‘보통’이라고 답변함. 3년 미만 거주자의 제설정보 전달 정도가 낮음.

표 22 A2-1 항목 결과

항목	선택 횟수	비율(%)
1 전혀 아니다	3	1.0
2 아니다	19	6.3
3 보통	113	37.2
4 그렇다	135	44.4
5 매우 그렇다	34	11.1
합계	304	100.0

- 9) A2-2 : 폭설 취약지점 인지 여부 조사
- 설문 응답자 중 ‘거주지 근처 폭설 취약지점(급경사, 응달진 곳 등 폭설에 취약한 지점)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답변자 중 37.2%인 110명이 ‘보통’, 35.5%가 ‘그렇다’고 답변함.
 - 3년 미만 거주자들의 취약지 인지 정도가 낮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취약지점 인지도가 높아짐.

표 23 A2-2 항목 결과

SQ3 답변 항목	A2-2 답변 항목	선택횟수	비율(%)
3년 미만	전혀 아니다	3	4.0
	아니다	21	28.0
	보통	36	48.0
	그렇다	12	16.0
	매우 그렇다	3	4.0
	소계	75	100.0
3년 이상 ~ 5년 미만	전혀 아니다	2	3.8
	아니다	10	19.2
	보통	22	42.3
	그렇다	15	28.8
	매우 그렇다	3	5.8
	소계	52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전혀 아니다	2	3.0
	아니다	14	21.2
	보통	21	31.8
	그렇다	26	39.4
	매우 그렇다	3	4.5
	소계	66	100.0
10년 이상	전혀 아니다	3	3.1
	아니다	11	11.2
	보통	36	36.7
	그렇다	38	38.8
	매우 그렇다	10	10.2
	소계	98	100.0

10) B1 : 제설책임 조사

- 제설에 대한 책임 관련 조사 결과, 공공 및 개인의 공동 책임으로 보는 입장이 267명으로 전체 답변자의 88.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공공에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44.1%만이 제설에 대한 인지도가 있다고 답함. 공공만이 책임이라는 응답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45.7%에 달하며 연령은 50대가 36.1%로 가장 많고 과태료 도입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68.6%로 다수임.

표 24 B1 항목 결과(1)

항목	선택 횟수	비율(%)
1 공공(서울시, 구청, 주민센터)만의 책임	35	11.6
2 공공 및 개인의 공동 책임	267	88.4
합계	302	100.0

표 25 B1 항목 결과(2)

B1 답변 항목	SQ4 답변 항목	선택횟수	비율(%)
공공(서울시, 구청 주민센터)만의 책임	단독주택	3	8.6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16	45.7
	공동주택(아파트)	16	45.7
	소계	35	100.0
공공 및 개인의 공동 책임	단독주택	39	14.9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96	36.8
	공동주택(아파트)	126	48.3
	소계	261	100.0

표 26 B1 항목 결과(3)

B1 답변 항목	SQ6 답변 항목	선택횟수	비율(%)
공공(서울시, 구청 주민센터)만의 책임	20대	5	13.9
	30대	4	11.1
	40대	9	25.0
	50대	13	36.1
	60대 이상	5	13.9
	소계	36	100.0
공공 및 개인의 공동 책임	20대	45	17.1
	30대	42	16.0
	40대	55	20.9
	50대	80	30.4
	60대 이상	41	15.6
	소계	263	100.0

표 27 B1 항목 결과(4)

B1 답변 항목	B2 답변 항목	선택횟수	비율(%)
공공(서울시, 구청 주민센터)만의 책임	찬성한다	11	31.4
	반대한다	24	68.6
	소계	35	100.0
공공 및 공동 책임	찬성한다	148	56.7
	반대한다	113	43.3
	소계	261	100.0

- 11)
- B2 : 과태료 부과 찬반 조사
- 자기 집 또는 점포 앞 제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여부 조사 결과, ‘찬성한다.’가 168명으로 56.6%, ‘반대한다’가 129명으로 43.4%로 나타남. 반대자의 61.3%는 5년 이상 장기 거주자로 분석됨.

표 28 B2 항목 결과(1)

항목	선택 횟수	비율(%)
1 찬성한다	168	56.6
2 반대한다	129	43.4
합계	297	100.0

표 29 B2 항목 결과(2)

B2 답변 항목	SQ3 답변 항목	선택횟수	비율(%)
찬성한다	3년 미만	43	26.7
	3년 이상 ~ 5년 미만	31	19.3
	5년 이상 ~ 10년 미만	32	19.9
	10년 이상	55	34.2
	소계	161	100.0
반대한다	3년 미만	32	23.4
	3년 이상 ~ 5년 미만	21	15.3
	5년 이상 ~ 10년 미만	37	27.0
	10년 이상	47	34.3
	소계	137	100.0

12) B3-1 : 제설 요령 인지 여부 조사

- 설문 응답자 중 ‘제설 요령(제설구역, 눈치우기, 제설제 뿌리기, 눈 쌓아 놓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전체 답변자 중 141명인 46.6%가 ‘보통’, 30.5%가 ‘그렇다’, 14.9%가 ‘아니다.’고 답변함.

표 30 B3-1 항목 결과

항목	선택 횟수	비율(%)
1 전혀 아니다	9	3.0
2 아니다	45	14.9
3 보통	141	46.6
4 그렇다	92	30.5
5 매우 그렇다	15	5.0
합계	302	100.0

13) C1 : 제설장비 지원 여부 조사

- 제설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지원(받는) 여부 조사 결과, 전체 답변자 중 109명인 35.7%가 ‘적당히 받고 있다.’를 선택하였으며, 26.1%는 ‘못 받고 있다.’, 21.9%는 ‘약간 부족하게 전달받고 있다.’를 선택함.

표 31 C1 항목 결과

항목	선택 횟수	비율(%)
1 매우 잘 받고 있다	9	2.9
2 잘 받고 있다	41	13.4
3 적당히 받고 있다	109	35.7
4 약간 부족하게 전달받고 있다	67	21.9
5 못 받고 있다	80	26.1
합계	306	100.0

- 14) C2 : 필요 제설 장비 조사
- 지원을 원하는 제설 장비 및 자재 유형 조사 결과, 전체 답변자 중 122명인 49.6%가 ‘용설제(염화칼슘 등)’를 선택하였으며, 21.5%는 ‘넉가래’, 16.7%는 ‘빗자루’를 선택함.

표 32 C2 항목 결과

항목	선택 횟수	비율(%)
1 넉가래	53	21.5
2 빗자루	41	16.7
3 용설제(염화칼슘 등)	122	49.6
4 모래	30	12.2
5 기타	0	0.0
합계	246	100.0